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지난날을 회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때로는 일상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계속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의 복음과 율법주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대조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삭은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났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와 같이 육체를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3,28,2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와 같이 인간이 애쓰고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2.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31절과 5장 1절)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 수고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하게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은 우리를 기쁨과 자유로 이끕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갈라디아서 5장 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4/30(토)	5/1(주일)
왕상13-14	왕상15-17	왕상18-19	왕상20-21	왕상22	왕하1-4	왕하5-6

QT

이번 주 QT 말씀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4/30(토)	5/1(주일)
말 2:1-9	말 2:10-16	말 2:17-3:6	말 3:7-12	말 3:13-18	말 4:1-6	고전 1:1-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 즉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3. 자신이 은혜 아래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